

NEWSRINGPROJECT

Beyond the Wind: Italy to Jeju

바람 너머, 이탈리아에서 제주까지

강임윤은 지난 20여 년간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삶과 회화가 만나는 지점을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과 현재 거주 중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의 삶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빛과 공기, 그리고 일상의 감각을 그의 회화 안에 축적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지나며 형성된 감각의 흐름을 제주의 자연 속에서 새롭게 펼쳐 보입니다.

작가에게 ‘바람’은 보이지 않는 감각과 기억, 그리고 삶을 이어주는 흐름입니다. 이동과 변화 속에서 살아온 시간은 그의 화면 위에서 자유롭고 유기적인 붓질, 깊이 스며드는 색채와 여백으로 드러납니다. 아침의 빛과 저녁의 석양,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의 결은 천천히 응축되어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업은 생명의 생성과 변화에서 자연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회화가 확장되어 온 흐름을 보여줍니다. 201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을 통해 생명의 생성과 성장, 변화에 대한 사유를 살펴볼 수 있으며, 올해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신작에서는 빛과 바람, 식물과 공기 등 자연의 감각을 담아낸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선보인 타원형 화면은 사각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서리가 없는 형태는 생명이 아직 이름과 형태를 갖기 이전의 공간이자, 모든 가능성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화면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색과 붓질은 줄기와 잎을 연상시키며,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는 리듬을 따라 형성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형상은 관람자의 감각 안에서 저마다 다른 이미지로 확장됩니다. 특히 <Leaves I>는 이전 회화의 일부를 새로운 화면으로 다시 옮겨와, 생명이 순환하듯 회화 역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작가의 시선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랜드조선제주의 두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각으로 펼쳐집니다. 본관에 위치한 풀사이드 갤러리에는 <Mamma Mia II>, <Drift 표류>, <Undercurrent 저류>, 그리고 타원형 캔버스 연작이 전시되어 바람과 빛, 물이 교차하는 제주의 풍경과 호응하며 자유로운 흐름과 생명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힐 스위트의 헤브리 라운지에는 <Primavera 봄>, <Prato 들판>, <Fruitbearer 열매 맺는 이>, <Path 길>이 놓여 제주의 푸른 자연과 바다를 배경으로 생명의 온기와 평온한 리듬을 전합니다.

제주는 바람과 빛, 바다가 끊임없이 서로를 통과하는 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감각은 제주의 공기와 만나 또 다른 결을 만들고, 서로 다른 장소를 지나온 시간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Beyond the Wind: Italy to Jeju》는 보이지 않는 감각이 삶과 회화를 통해 어떻게 축적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불어온 바람은 제주의 바람과 만나 새로운 기류를 만들고, 그 기류는 화면을 넘어 관람자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NEWSRINGPROJECT

For more than two decades, Eemyun Kang has worked primarily between the UK and Italy, continually exploring the point at which life and painting intersect. Her years in the UK and her current life in Milan, Italy, have accumulated within her paintings the distinct cultures and languages, light and air, and subtle sensations of everyday life. *Beyond the Wind: Italy to Jeju* unfolds this flow of sensibility anew within the natural landscape of Jeju, tracing the passage of time and experience across different places, from Italy to the island.

For the artist, “wind” represents an invisible current that connects sensation, memory, and life. The years spent living through movement and change emerge on the canvas through free, organic brushstrokes, deeply absorbed colors, and areas of open space. Morning light, evening sunsets, and the changing texture of the air across the seasons are gradually distilled into singular images.

The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trace the expanding trajectory of Kang’s painting, from the generation and transformation of life to the sensory experience of nature. Works produced since 2016 offer a reflection on the emergenc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life, while new works created in Italy this year capture the sensations of nature through light and wind, plants and air.

In particular, the oval canvases Kang has developed since 2017 emerged from her desire to move beyond the confines of the rectangular frame. Without corners, the oval form suggests a space that exists before life takes on a name or shape—a place where all possibilities remain open. Colors and brushstrokes move freely across the surface, evoking stems and leaves and following the rhythm through which life emerges and grows. The forms that arise in this process expand into different images within each viewer’s perception. *Leaves I*, in particular, brings a fragment of an earlier painting into a new composition, reflecting the artist’s understanding that, just as life moves through cycles, painting too can continue into another form of life.

The exhibition unfolds through two distinct spaces at Grand Josun Jeju, each offering a different sensory experience. At the Poolside Gallery in the main building, *Mamma Mia II*, *Drift*, *Undercurrent*, and the oval canvas series respond to Jeju’s landscape, where wind, light, and water intersect, revealing a sense of fluid movement and the vitality of life.

At Heavenly Lounge in the Hill Suite, *Primavera*, *Prato*, *Fruitbearer*, and *Path* are presented against the lush greenery and sea of Jeju, conveying a sense of warmth and a quiet, tranquil rhythm of life.

Jeju is an island where wind, light, and sea continually pass through one another. The sensibility that began in Italy encounters the air of Jeju and takes on another texture, while time shaped across different places flows into a single current. *Beyond the Wind: Italy to Jeju* explores how invisible sensations accumulate and become connected through life and painting. The wind that began in Italy meets the wind of Jeju, creating a new current that moves beyond the canvas and quietly permeates the memories and senses of those who encounter it.